

## 楊萬里와 袁枚의 翻案法 小攷

신 재 환\*

<目次>

I. 서론	III. 袁枚의 翻案法
II. 楊萬里的 翻案法	IV. 결론

### I. 서론

중국고전시학에서 이른바 翻案이란 前代 시인들이 ‘이미 지어놓은 시구’[成句]의 ‘원래 의미’[原意]를 뒤바꾸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作詩 技巧上的 방법을 말한다. 이는 北宋의 黃庭堅(1045~1105) 이 처음으로 제창한 ‘換骨奪胎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換骨奪胎’는 본래 道敎의 용어인데, ‘凡胎俗骨’에서 벗어나 ‘聖胎仙骨’로 탈바꿈함을 뜻한다. 이후 시학이론에 援用되어 詩法의 방법으로 비유되었으니, ‘前人을 본받되 흔적을 드러내지 않으며 아울러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sup>1)</sup>

승려의 신분으로 황정견과 동시대를 살며 서로 교분이 있었던 惠洪(1071~1128)은 그의 《冷齋夜話》 권1에서 황정견의 말을 인용하여, 詩法으로서의 ‘換骨奪胎’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奪胎換骨] : 原爲道敎語, 謂脫去凡胎俗骨而換爲聖胎仙骨. 後用以喻師法前人而不露痕跡, 並能創新.(《漢語大詞典》)

[환골탈태법] 황정건이 말하기를, “詩意는 무궁하나 사람의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 있는 재능으로 무궁한 詩意를 추구하려 든다면, 비록 도연명이나 두보라 할지라도 공교함은 얻기 어렵다. 그러나 고인의 뜻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말을 만드는 것을 환골법이라 하고, 고인의 뜻을 모방하여 그것을 형용해 내는 것을 탈태법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換骨奪胎法] 山谷云, 詩意無窮而人之才有限, 以有限之才追無窮之意, 雖淵明·少陵不得工也. 然不易其意而造其語, 謂之‘換骨’法; 窺入其意形容之, 謂之‘奪胎’法.<sup>2)</sup>

황정건은 한정된 인간의 詩的 才能에 비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意境은 무한하니, 설령 도연명이나 두보와 같은 大家라 하더라도 무한한 意境을 온전히 표출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換骨法과 奪胎法이라는 詩法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의 이면에는 宋詩가 황정건의 단계에 와서는 그 성격이 뚜렷해져서 宋初의 詩風을 개혁하는 일보다는 시를 짓는 데 있어서의 기교 내지는 수법에 대한 관심이 짙어져 詩病·句法·詩律·詩眼 등을 따지는 방향으로 시론이 전개되는 경향성을 지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3)</sup> ‘換骨奪胎法’이 비록 황정건 본인이 아닌 혜홍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이후 江西詩派의 주요 시학이론의 하나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換骨奪胎’의 詩法은 摹擬와 剽竊의 또 다른 유형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었으니,<sup>4)</sup> 金代의 시론가 王若虛(1174

2)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卷3「惠洪詩話」, 江蘇古籍出版社, 1998, 2429-2430쪽.

3) 詩法에 대한 황정건의 관심과 노력은 크게 ‘點鐵成金’과 ‘換骨奪胎’로 귀결되니, 전자에 대한 논의는 <答洪駒父書>에서 “옛날의 글 짓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비록 옛사람의 목은 말을 취해다 글 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마치 한 알의 靈丹이 쇠에 닿아서 그것을 금으로 만드는 것 같이 되게 한다.”(古之能爲文章者, 眞能陶冶萬物, 雖取古人之陳言入於翰墨, 如靈丹一粒點鐵成金也.)라고 하였다.

4) 張少康은 《中國古典文學創作論》에서 “宋代는 理學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道學家들이 시가 창작에 대하여 내용에서 형식까지 모두 엄격한 규범을 제기하

~1243) 또한 《淳南詩話》 권3에서 다음과 같이 부정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황정건이 시를 논함에 탈태환골과 점철성금의 비유가 있으니, 세상에서는 그것을 명언으로 여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단지 교활한 표절일 뿐이다.

魯直論詩, 有奪胎換骨·點鐵成金之喻, 世以爲名言. 以予觀之, 特剽竊之黠者耳.<sup>5)</sup>

필자는 일찍이 袁枚가 제창한 性靈詩說의 연원을 南朝 梁의 鍾嶸과 南宋의 楊萬里 그리고 明代의 袁宏道를 중심으로 한 公安派의 시학이론에 두고 그들과의 구체적 연원 내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sup>6)</sup> 양만리와 원매 모두 詩法 중 시의 翻案에 적지 않은 관심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그들의 논지가 일정 부분 일맥상통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인 개인의 個性과 創新의 추구’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性靈詩說이라는 큰 범주에서 비록 600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비슷한 성향의 시학이론을 지녔던 두 작가가 어떠한 연유에서 자칫 摹擬와 剽竊의 한 유형으로 인식될 수 있는 翻案이란 詩法을 수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두 작가가 왜 翻案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이 제기한

여 일종의 ‘죽은 법’[死法]을 강구하는 문예 사조가 나타났다. 강서시파는 바로 이러한 조류 아래 나타난 것이며, 그들이 주장한 ‘脫胎換骨’·‘點鐵成金’은 바로 ‘죽은 법’의 일종의 표현이다.”라고 하여, 강서시파의 태동을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주장한 환골탈태법을 ‘죽은 법’이라고 폄하하였다. (張少康 著·李鴻鎮 譯, 《中國古典文學創作論》, 法仁文化社, 2000, 436쪽)

5) 畢桂發 外 主編, 《精選歷代詩話評釋》, 中州古籍出版社, 1987, 118쪽.

6) 袁枚 性靈詩說의 연원을 梁 鍾嶸, 南宋의 楊萬里, 明의 袁宏道를 중심으로 한 公安派의 詩論에 두고, 楊萬리에게서는 ① 晚唐 시풍의 추구, ② 眞과 我的 중시 등의 측면에서 계승관계를 살펴보았다. (拙稿, <隨園詩話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85-186쪽)

翻案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중국고전시학에서 詩法으로서의 翻案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 II. 楊萬里的 翻案法

楊萬里(1124~1206)는 자가 廷秀 호가 誠齋이며, 江西 吉水 사람이다. 관직이 寶謨閣學士에 올랐으며 시호는 文節이다. 저서로는 《誠齋集》 133권이 있으며, 그 가운데 《誠齋詩話》 1권이 있다.

양만리는 晩年에 자신의 學詩 역정을 되돌아보면서, 젊은 시절 江西詩派를 배웠고, 이후 陳師道の 오언 율시와 王安石의 칠언 절구를 배웠으며, 다시 唐人의 絕句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sup>7)</sup> 그는 또한 作詩에 있어서 ‘去詞’(修辭를 위주로 하지 않으면서도 詞采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됨)·‘去意’(意外的 맛이 있으며 情意가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8)</sup>

이렇듯 그가 學詩의 출발을 강서시파에서 시작하였기에, 강서시파의 宗主격인 황정건이 내세운 換骨奪胎法에 관심을 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呂本中の <江西詩社宗派圖>를 증보하여 <江西續派>를 만들고, 여본중이 편찬한 <江西宗派詩集>의 序文을 써서 이른바 강서시파의 活法을 제창하였다. 여기에서 活法이란 이미 이루어진 詩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여기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풍부한 변화를 추구함을 말한다. 摹擬와 剽竊의 또 다른 變形이 아닌 活法의 한 방편으로서의 換骨奪胎法에 대해, 《誠齋詩話》에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7) 《誠齋集》 권80 <荊溪集序> : 予之詩始學江西諸君子, 既又學後山五字律, 既又學半山老人七字絕句, 晚乃學絕句于唐人.

8) 《誠齋集》 권83 <頤庵詩稿序> : 夫詩何爲者? 尙其詞而已矣? 曰: 善詩者去詞. 然則尙其意而已矣? 曰: 善詩者去意. 然則去詞去意, 則詩安在乎? 曰: 去詞去意, 而詩有在矣.

유신의 <月> 시에 「강을 건너도 빛은 젖지 않네」<sup>9)</sup>라고 하였는데, 두보는 「강으로 들어가나 달은 빠지지 않네」<sup>10)</sup>라고 하였다. 唐人이 「竹院 지나다가 스님 만나 얘기 나누니, 또 뜰구름 같은 삶에 만나질이 한가롭네」<sup>11)</sup>라고 하였는데, 소식은 「추적추적 지난밤 비 내리더니, 또 뜰구름 같은 삶에 온종일 서늘하네」라고 하였다. 두보의 <夢李白>에 「지는 달이 용마루에 휘영청 밝으니, 님의 얼굴 어림인 듯 의아하도다」라고 하였는데, 황정건의 <簾>에 「석양이 강 물결 비추니, 어렴풋이 이것이 님의 얼굴인 듯」이라고 하였다. 한유가 「어떻게 연이어 말 알아듣나 하였더니, 단지 고향을 말할 뿐이네」<sup>12)</sup>라고 하였는데, 여본중은 「오늘밤 비에 어찌나 하였더니, 단지 파초만 적실 뿐이네」라고 하였다. 이 시편들은 모두 古人의 句律을 사용하고 그 句意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옛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니, 奪胎換骨인 것이다.

庾信<月>詩雲:「渡河光不濕」杜雲:「入河蟾不沒」唐人雲:「因過竹院逢僧話, 又得浮生半日閒」坡雲:「殷勤昨夜三更雨, 又得浮生盡日涼」杜<夢李白>雲:「落月滿屋梁, 猶疑照顏色」山穀<簾>詩雲:「落日映江波, 依稀比顏色」退之雲:「如何連曉語, 祇是說家鄉」呂居仁雲:「如何今夜雨, 祇是滴芭蕉」此皆用古人句律, 而不用其句意, 以故爲新, 奪胎換骨.<sup>13)</sup>

양만리는 먼저 네 수의 原作詩를 예시하고 각각의 시구에 대한 換骨奪胎의 과정을 거친 네 수의 新作詩를 예시하였다. 제1조를 제외하면 모두 唐人의 原作詩에 대한 江西詩派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宋人의 新作詩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말미에 新作詩들은 단순히 原作詩의 ‘詩句의 격률’

- 9) 庾信의 <望月>이며,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桂殿月偏來, 留光引上才. 園隨漢東蚌, 暈逐淮南灰. 渡河光不濕, 移輪轍巨開. 此夜臨清景, 還承終宴杯.
- 10) 두보의 <月>이며,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上秋期近, 人間月影清. 入河蟾不沒, 搗藥免長生. 只益丹心苦, 能添白髮明. 幹戈知滿地, 休照國西營.
- 11) 唐 李涉의 <題鶴林寺僧舍>의 후반부이며, 전반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終日昏昏醉夢間, 忽聞春盡強登山.
- 12) 한유의 <宿龍宮灘>이며,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浩浩復湯湯, 灘聲抑更揚. 奔流疑激電, 驚浪似浮霜. 夢覺燈生暈, 宵殘雨送涼. 如何連曉語, 祇是說家鄉.
- 13)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 卷6 「誠齋詩話」, 江蘇古籍出版社, 1998, 5942 쪽.

[句律]을 사용했을 뿐 ‘詩句의 뜻’[句意]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옛 것’[故]을 ‘새로운 것’[新]으로 탈바꿈시켰다는 評語를 부여하며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sup>14)</sup>

황정건의 ‘換骨奪胎’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위 조목에 예시된 네 수의 原作詩에 대한 新作詩는 모두 奪胎法의 범주에 속한다. 즉, 原作詩의 句法 혹은 語勢를 이용하였을 뿐이지 詩意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각각 ‘강을 건넌’[渡河]→‘강으로 들어감’[入河]·‘반나절의 한가로움’[半日閒]→‘온종일 서늘함’[盡日涼]·‘지는 달’[落月]→‘지는 해’[落日]·‘고향을 말할 뿐’[說家鄉]→‘과초만 적실 뿐’[滴芭蕉]으로 바뀌었으니, ‘고인의 뜻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말을 만드느’(不易其意而造其語) 換骨法이 아니라 ‘고인의 뜻을 모방하여 그것을 형용해 내는’(窺入其意形容之) 奪胎法인 것이다.

그러나 양만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奪胎換骨’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南宋 이후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은 기풍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15)</sup> 奪胎法을 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新作詩의 意境이 原作詩를 뛰어넘는 것이니, ‘옛 것을 새롭게 만들어’(以故爲新) ‘그것을 형용해 내는 것’(形容之)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양만리는 황정건이 제기한 換骨奪胎의 詩法에서 한걸음 나아가 翻案의

14) 대만의 張健은 <楊萬里的文學理論研究>에서 두보 <月>의 시구는 庾信 <月>의 시구를 뛰어넘지 못하고, 소식의 시구 또한 李涉의 시구만큼 自然深永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황정건과 여분중의 시구는 새로운 詩意를 지니게 되어, 두보와 한유의 시구를 능가한다고 하였다. (張健 著, 《文學批評論集》, 學生書局, 민국 74, 156쪽)

15) 吳台錫의 《黃庭堅詩研究》에서 황정건 자신도 실제 시를 지을 때 換骨法과 奪胎法을 구분 사용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구분의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① 작자가 의거하였던 원래의 시를 제대로 찾아내기가 용이하지 않고, ② 形象性を 중시하는 문학 특히 시의 특성상 原詩를 안다 하더라도, 詩意와 語彙의 변형의 한계와 기준을 수학적 계산을 하듯이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吳台錫 著, 《黃庭堅詩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1991, 217-218쪽)

기능을 제기하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翻案 역시 奪胎法의 일종이니, ‘그것을 형용해 내는’(形容之) 과정에서 단지 ‘고인의 뜻을 모방하는’(窺入其意) 데 그치지 않고 ‘고인의 뜻을 반대로 사용한다’(反其意而用之)는 것이다.<sup>16)</sup>

그는 作詩上의 翻案法에 대해 南宋 隆興 이래로 範成大 등과 더불어 詩名을 떨쳤던 林謙之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唐人의 여덟 구로 이루어진 칠언 율시에, 한 편 중에 매구마다 모두 기이하고, 한 구 중에 매 글자마다 모두 기이한 것은 고금의 작가들 모두 그렇게 하기 어렵다. 내 일찍이 林謙之와 이 일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임검지가 개탄하며 말하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시집 중에도 몇 편 짓지 않으면 안 될 뿐이다. 이를테면 두보의 <九日藍田崔氏莊>에서 「늪어감에 가을 슬퍼하다 억지로 스스로 마음을 풀고, 흥겨운 오늘 그대와 즐거움을 다 하리라.」라고 한 것은 비단 구에 들어가는 글자마다 對偶일 뿐만 아니라 제1구[出句]가 순식간에 변화하여 가을을 슬퍼함을 말하자마자 갑작스레 또한 스스로 마음을 풀게 된다. ‘스스로’[自]를 ‘그대’[君]에 짝지은 것은 매우 절실하니, ‘君’은 그대요 ‘自’는 나이다. 「부끄럽게도 성긴 머리카락 때문에 모자 바람에 벗겨 떨어지니, 웃으며 옆 사람에게 관모 바로잡아 달라 했다네.」라고 한 것은 하나의 일을 뒤집어 한 聯으로 고쳐 만든 것이다. 또한 孟嘉는 모자가 벗겨 떨어지는 것을 풍류로 여겼지만 두보는 모자가 벗겨 떨어지지 않는 것을 풍류로 여겼으니, 古人の 公案을 뒤집는 것을 최고의 妙法으로 여겼다. 「남수는 멀리 천 겹 골짜기에서 흘러내리고, 옥산은 나란히 높아 두 봉우리에 한기 서렸네.」라고 하였는데, 시인이 이즈음에 이르면 필력이 대부분 쇠약해져 지금 바야흐로 웅걸차고 힘을 내어 한 편의 정신이 담긴 저작을 불러 일으켜야 하니, 스스로 필력이 산을 뽑아낼 기세가 아니라면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내년 이 모임에는 누가 건강하게 나타날까? 술 취해 수유를 들고 자세히 바라본다네.」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니 아득하여 끝이 없다.”라고 하였다.

16) 翻案에 대해 明代 謝榛은 그의 《四溟詩話》 권2에서 간명하게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어》에 이르기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두보가 말하기를 ‘물이 맑으면 오히려 물고기가 많다.’라고 하였으니, 《가어》의 말을 뒤집어 더욱 맛이 있다.”(《家語》曰: ‘水至清則無魚.’ 杜子美曰: ‘水清反多魚.’ 翻案《家語》更有味.)

唐律七言八句，一篇之中，句句皆奇，一句之中，字字皆奇，古今作者皆難之。予嘗與林謙之論此事，謙之慨然曰：“但吾輩詩集中，不可不作數篇耳。如老杜<九日>詩雲：「老去悲秋強自寬，興來今日盡君歡。」不徒入句便字字對屬。又第一句頃刻變化，纔說悲秋，忽又自寬。以‘自’對‘君’甚切，君者君也，自者我也。「羞將短髮還吹帽，笑倩旁人爲正冠。」將一事翻騰作一聯，又孟嘉以落帽爲風流，少陵以不落爲風流，翻盡古人公案，最爲妙法。「藍水遠從千澗落，玉山高並兩峰寒。」詩人至此，筆力多衰，今方且雄傑挺拔，喚起一篇精神，自非筆力拔山，不至於此。「明年此會知誰健，醉把茱萸仔細看。」則意味深長，悠然無窮矣。”<sup>17)</sup>

위 조목의 내용은 양만리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林謙之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전형적인 引用批評의 비평양상을 보여주고 있다.<sup>18)</sup> 唐人의 칠언 율시 중 ‘매 글자마다 모두 기이하여’(字字皆奇) 보통의 재능을 가진 시인이면 감히 지을 수 없는 작품의 전형으로 두보의 <九日藍田崔氏莊>을 예시하고, 각 聯에 대해 내용과 형식을 넘나들며 참신한 評語로 분석하고 있다. 全詩 중 翻案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한 부분은 頷聯이니, 그 내용을 다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羞將短髮還吹帽, 부끄럽게도 성긴 머리카락 때문에 모자 바람에 벗겨  
떨어지니,  
笑倩旁人爲正冠. 웃으며 옆 사람에게 관모 바로잡아 달라 했다네.

《晉書·孟嘉傳》에 의하면, 晉의 풍류객 孟嘉는 桓溫 밑에서 參軍 벼슬을 하며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어느 해 9월 9월 重陽節에 환온이 龍山

17)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 卷6 「誠齋詩話」, 江蘇古籍出版社, 1998, 5935-5936쪽.

18) 引用批評이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인용하고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비평양상을 말한다. 대체로 전대의 시학이론을 검토하는 과정이나 혹은 友人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중에서 비교적 자신의 시론에 부합되는 내용이 있으면 가려서 자신의 이론체계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拙稿, 앞의 논문 185-186쪽)

에서 잔치를 벌일 때 그만 가을바람에 맹가의 모자가 날아가 땅에 굴렀는데, 맹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에 환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孫成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서 맹가를 놀리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풍류를 아는 맹가는 즉석에서 그 글을 되받아서 조롱을 해명하는 글을 지었다. 두보는 이 고사의 내용을 뒤집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았으니, 웃으며 미리 옆 사람에게 부탁하여 관모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잡아 썼던 것이다. ‘古人の 公案’<sup>19)</sup>을 뒤집는 翻案의 詩法을 作詩上 최고의 妙法으로 여겼던 두보였기에 이와 같은 완성도 높은 秀作을 지을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만약 두보가 맹가의 고사를 그대로 써먹으려는 의도에서 옆 사람에게 관모를 바로잡아 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은 채 모자가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묘사했다면, 이는 새로운 것으로의 탈바꿈이 아니라 剽竊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양만리는 또한 翻案의 대상을 단지 古人の 詩篇에 국한시키지 않고 經傳을 비롯한 歷史書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니, 다음의 조목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시인들은 고인의 詩語를 사용하나 그 뜻을 사용하지 않으니, 이것이 가장 妙法이다. 이를테면, 황정건의 <猩猩毛筆>이 그러하다. 성성이 는 나막신 신기를 좋아하니 그런 까닭에 阮孚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성성의 털로 붓을 만들고 그것으로 글씨를 베껴 쓰니 그런 까닭에 惠施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이 두 가지 고사는 모두 사람의 일을 빌어 사물을 읊었으니, 애초에 성성이 털로 만든 붓의 이야기는 아니다. <좌전>에 이르기를 「깊은 산과 큰 연못에는 실로 용과 뱀이 난다.」라고 하였는데, 황정건의 <中秋月> 시에 이르기를 「노목의 시든 등나무 빛을 받으니, 깊은 산과 큰 연못이 모두 용과 뱀이라네.」라고 하였다. <주례·고공기>에 이르기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레는 둥근 덮개로 하늘을 본뜨고 네모난 뒤턱나무로 땅

19) 여기에서 ‘古人の 公案’이라 함은 그 범위가 ‘前代 시인들이 남긴 詩文’이라는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및 故事 등을 두루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을 본뜬다。」라고 하였는데, 황정건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의지가 원대하고 굳건해야 하니, 하늘과 땅이 수레의 뒤턱나무와 덮개가 된다네。」라고 하였다. 맹자가 이르기를 「나는 <무성편>에서 두세 가지 책간만 취할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황정건이 소식을 일컬어 말하기를 「평생 동안 다섯 수레의 책을 읽었건만, 책략 두세 가지 드러내지 않았네。」라고 하였다. 공자와 정자가 서로 우연히 만나 친밀하게 담소하자 추양이 말하기를 「처음 잠깐 만났는데도 매우 친숙하네。」라고 하였다. 손모는 소식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시를 지어 소식에게 부쳐주자 소식이 말하기를 「그대와는 수레 덮개 또한 기울일 필요가 없네。」라고 하였다. 유관은 견책하는 관리인데 부들로 채찍을 만들었으니 관대함이 지극하였다. 소식의 시에 이르기를 「채찍이 있어도 부리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부들을 사용했는가?」라고 하였다. 두보의 시에 이르기를 「갑자기 지난날 능묘 낮아짐을 생각하네. 고인의 백골에 푸른 이끼 생겨났으니, 어찌 마시지 않고 마음이 슬퍼지겠나?」라고 하였는데, 소식이 이르기를 「어찌 다시 능묘 낮아짐을 기다렸다가, 사람의 백골을 보고 술을 마시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翻案法이다. 내 친구인 安福의 劉浚은 字가 景明인데, <重陽> 시에 이르기를 「茱萸 자세히 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내년에는 모두 건강할 것이라네。」라고 하였는데, 이 법을 취한 것이다.

詩家用古人語, 而不用其意, 最爲妙法, 如山谷<猩猩毛筆>是也. 猩猩喜著屐, 故用阮孚事. 其毛作筆, 用之鈔書, 故用惠施事. 二事皆借人事以詠物, 初非猩猩毛筆事也. <左傳>云: 「深山大澤, 實生龍蛇。」而山谷<中秋月>詩云: 「寒藤老木被光景, 深山大澤皆龍蛇。」<周禮·考工記>云: 「車人蓋圓以象天, 軫方以象地。」而山谷云: 「大夫要宏毅, 天地爲蓋軫。」孟子云: 「武成取二三策。」而山谷稱東坡云: 「平生五車書, 未吐二三策。」孔子·程子相見傾蓋, 鄒陽云: 「傾蓋如故。」孫侔與東坡不相識, 乃以詩寄坡, 坡和云: 「與君蓋亦不須傾。」劉寬責吏, 以蒲爲鞭, 寬厚至矣. 東坡詩云: 「有鞭不使安用蒲。」老杜有詩云: 「忽憶往時秋井塌, 古人白骨生青苔, 如何不飲令心哀?」東坡則云: 「何須更待秋井塌, 見人白骨方銜盃?」此皆翻案法也. 予友人安福劉浚字景明, <重陽>詩云: 「不用茱萸仔細看, 管取明年各強健。」得此法矣.<sup>21)</sup>

20) 陵墓라는 의미를 지닌 ‘秋井’에 대한 仇兆鰲의 注에는 張綰의 말을 인용하여, “井은 고귀한 사람의 무덤으로, 오늘날 말하는 金井과 같다. 楚나라 사람들은 모두 楚王의 무덤을 井上이라고 불렀다.”(井是貴者之墓, 猶今言金井也, 楚人皆謂楚王墳爲井上.)라고 하였다.

위 조목에서 예시한 翻案의 用例는 도합 여덟 組이다. 그 중 후반부 두 組를 제외하고는 모두 翻案의 대상이 시가 아닌 기타 장르의 저작에 출처를 둔 典故를 취하고 있다. 첫머리에서 시인의 妙法이라고 제시한 ‘고인의 詩語를 사용하나 그 뜻을 사용하지 않음’(用古人語, 而不用其意)은 ‘고인의 뜻을 모방하여 그것을 형용해 냄’(窺入其意形容之)과 유사하니, 황정견이 말한 奪胎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고인의 詩語를 끌어 쓰되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사용하니, 이것이 곧 翻案法인 것이다.

제1조의 제목만 예시한 황정견의 시는 원 제목이 <和答錢穆父詠猩猩毛筆>인데,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愛酒醉魂在,	술 좋아해 취한 듯 꿈꾸는 듯하니,
能言機事疏,	말 잘해도 중대한 일은 대충한다네.
平生幾兩屐,	평생에 몇 켤레 나막신 신어보았을까?
身後五車書.	죽어서는 다섯 수레의 책이 되었다네.
物色看王會,	털로 만든 붓은 왕의 모임에서 볼 수 있으니,
勳勞在石渠.	그 공로는 石渠閣에 있다네.
拔毛能濟世,	털 뽑아 능히 세상을 구제할 수 있으니,
端爲謝楊朱.	고의로 楊朱를 사양한다네.

이 시는 황정견이 元豐 연간(1078~1085) 동안 黨禍를 입고 지방관으로 있다가, 이듬해 舊派의 시기를 맞은 元祐 원년(1086)에 지은 작품으로, 錢穆父가 高麗에 출사한 뒤 가지고 온 성성이 털로 만든 붓을 소재로 하여 지은 시에 대한 和答詩이다. 典故를 많이 사용하기로 유명한 작품으로, 총 12개의 전고를 사용하였으며, 역대로 황정견의 시적 성취를 이룬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1)</sup>

위 조목에서 황정견이 翻案의 詩法으로 활용한 典故를 阮孚와 惠施의

21)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 卷6 「誠齋詩話」, 江蘇古籍出版社, 1998, 5936-5937쪽.

22) 全詩에 대한 분석은 吳台錫의 앞의 책 216-218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고사에 국한하였으니, 논의의 범위를 이 두 고사에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성성이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술과 나막신을 차려놓으면 성성이가 와서 술을 먹고 취하여 나막신을 가져다 신어보다가 그만 술이 취해 동작이 재빠르지 못하면 사람들이 성성을 사로잡아서 그 털로 붓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대략의 줄거리이다.<sup>23)</sup> 頷聯의 “평생에 몇 켤레 나막신 신어보았을까?”(平生幾兩屐)라고 한 것은 《世說新語·雅量》의 “어떤 사람이 완부에게 다가와서 그가 스스로 붓을 불어 나막신에 밀랍으로 칠을 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평생 동안 몇 켤레의 나막신을 신는지도 모르는가!’라고 하였으나, 그의 얼굴 표정은 여유롭고 편안하였다.”(或有詣阮, 見自吹火蠟屐, 因歎曰: ‘未知一生當著幾量屐!’ 神色閑暢.)라고 한 데서 나왔고, “죽어서는 다섯 수레의 책이 된다네.”(身後五車書)라고 한 것은 《莊子·天下》의 “혜시는 여러 방면에 관심이 있어, 그 책이 다섯 수레나 되었다.”(惠施多方, 其書五車.)라고 한 데서 나왔다. 양만리는 황정건이 ‘고인의 詩語를 사용하였으나’[量屐→兩屐, 書五車→五車書] ‘그 뜻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즉, 阮孚는 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阮鹹의 아들로서, 그에게는 收集癖이 있었으니 나막신을 유독 좋아하여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어느 날 한 知人이 그가 온 정성을 다해 나막신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도대체 평생 동안 몇 켤레의 나막신을 신는다고 저렇게 정성을 쏟는단 말인가?’라고 하였으니, 《세설신어》에서 말한 ‘幾量屐’과 황정건이 의도한 ‘幾兩屐’은 그 뜻이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방면으로 학식이 높아 저술한 책이 다섯 수레나 되었던 惠施의 ‘書五車’와 성성이가 죽어 그 털로 만든 붓을 이용하여 수많은 문장을 남긴 결과로서의 ‘五車書’ 또한 분명 같은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7조에 예시된 原作詩는 두보의 <蘇端薛復筵簡薛華醉歌>의 마지막 세 구절이고, 新作詩는 소식의 <次韻孔毅父久旱已而甚兩三首>의 마지막 聯이

23) 여기까지 故事의 출처는 《華陽國志》와 《水經注》이다.

다. 즉, 두보는 고인의 무덤에서 나온 백골을 보고 느끼는 인생의 비애에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음을 읊은 데 반해, 소식은 사람의 백골을 보고는 도무지 술맛이 나지 않음을 묘사하고 있다. 두 시 모두 ‘동일한 詩語’[秋井·白骨]를 사용하였으나 그 뜻하는 바는 서로 다르니, 결국 소식이 두보 시구를 翻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제8조에 친구 劉浚의 <重陽> 시구를 예시하고, 역시 翻案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9월 9일 重陽節이 되면 사람들은 머리에 茱萸를 꽂아 액운을 없애고 菊花주를 마시며 장수를 기원하는 풍속이 있다. 그런데 친구 劉浚의 시에는, 머리에 수유를 꽂고 장수를 기원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하게 내년을 기약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역시 옛날의 公案을 뒤집은 翻案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新作詩에 대한 원래의 公案을 세시풍속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두보의 <九日藍田崔氏莊>을 原作詩로도 볼 수 있으니, 尾聯에 “내년 이 모임에는 누가 건강하게 나타날까? 술 취해 수유를 들고 자세히 바라본다네.”(明年此會知誰健, 醉把茱萸仔細看.)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상 《誠齋詩話》를 중심으로 양만리의 翻案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황정건이 주장한 換骨奪胎의 詩法을 충분히 인식한 기초 위에 ‘新意의 추구’ 즉, ‘옛것을 새롭게 만들어’(以故爲新) ‘그것을 형용해 내는 것’(形容之)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翻案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換骨奪胎의 詩法이 곧 摹擬와 剽竊의 또 다른 유형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그것을 ‘死法’이 아닌 ‘活法’의 한 종류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新意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 摹擬와 剽竊에 불과하다는 비난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III. 袁枚의 翻案法

袁枚(1716~1797)는 자가 子才, 호가 簡齋, 一號는 存齋이며, 浙江 錢塘(지금의 杭州) 사람으로, 世稱 隨園先生이라 불렸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관직생활을 접고 乾隆 20년(1755) 본격적으로 江寧(지금의 南京) 小倉山 隨園에 들어가 살면서 저술 활동과 후진 양성에 온 힘을 쏟았으며, 만년에는 시학이론의 집대성인 《隨園詩話》를 편찬하여 性靈詩說을 널리 전파하였다. ‘오로지 자신의 性靈을 펼쳐 낼 뿐 格套에 얽매이지 않는다’(獨抒性靈, 不拘格套)는 明代 公安派의 시론을 계승하여, 시는 모름지기 ‘참된 성정을 펼쳐내고’[抒發真情], ‘형상이 생동적이어야 하며’[形象生動], ‘영감에 풍부하고’[富於靈感],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自然天成]고 주장하여, 당시의 시단에 일시적으로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총 26권 2003 조목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隨園詩話》에는 성령시설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의 시학이론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나 간간이 詩法에 대한 언급도 보이니, 그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景物을 묘사한 작품 가운데 句法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것이 있다. 元人의 시에 「돌이 깃누르니 죽순 비껴 나오네。」라고 하고, 宋人의 시에 「꿇긴 다리 비스듬히 놓이니 길로 여기네。」라고 하였다. 近人 劉春池는 「새가 맑게 갠 나무에서 시끄럽게 지저귀니 사람보다 즐겁네。」라고 하고, 魯星村은 「여름날의 자리는 사람보다 덥다네。」라고 하였다. 嘯村은 「눈 속에서는 좁고 지저분한 거리 없네。」라고 하고, 星村은 「멀리 있는 언덕에는 키 큰 나무 없네。」라고 하였는데, 모두 句法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 또한 句法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이 있다. 이를테면 「언덕 아득하니 나무 높아지기 어렵다네。」<sup>24)</sup>라고 하고 「멀리 있는 나무에 물결이 일어나네。」<sup>25)</sup>라고 한 것은

24) 宋 楊萬裏의 <曉泊舟廟山>이며,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煙昏山易遠, 岸闊樹難高. 去雁鳴相報, 遊魚冷總逃.

25) 清 查慎行的 <雨中渡黃河>이며, 해당 시구를 포함한 두 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流帆影沒, 遠樹浪頭生.

「멀리 있는 언덕에는 키 큰 나무 없네.」라고 한 것과 뜻이 서로 같으니, 모두 佳句가 되는 데는 해가 되지 않는다.

寫景有句同而意不同者: 元人雲: 「石壓筍斜出.」 宋人雲: 「斷橋斜取路.」 近人劉春池雲: 「鳥喧晴樹樂於人.」 魯星村雲: 「炎天幾席熱於人.」 嘯村雲: 「雪中無陋巷.」 星村雲: 「遠岸無高樹.」 皆句同而意不同也. 亦有句不同而意同者. 如: 「岸闊樹難高.」·「遠樹浪頭生.」, 與 「遠岸無高樹」 意思相同, 皆不害其爲佳也.<sup>26)</sup>

위 조목에 인용된 4組의 景物詩 중 제2조와 제3조는 원매와 동시대의 인물인 劉春池와 安慶 지역의 二村으로 불렸던 嘯村 李勉과 星村 魯濱의 작품이기 때문에, 황정건이 제기한 換骨奪胎의 詩法을 적용하여 師承 관계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동시대의 시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佳句를 보고 은연중에 句法과 詩意를 본받을 수 있음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제1조에 예시된 宋人과 元人의 시구는 모두 동일한 句式[5언 2·3 句式]과 結句 구조[앞 두 글자-원인, 뒤 세 글자-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땅에서 곧게 자라 나와야 할 죽순이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비껴 나온다는 詩意와 끊긴 나무다리가 시내에 비스듬히 걸쳐 있는 모습이 마치 길과 흡사하다는 詩意는 사뭇 다르다고 하겠다. 이 두 시가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된 원인은 아마도 ‘斜’ 자가 공통의 詩眼이기 때문인 듯하다.

제4조에 예시된 세 구는 각각 南宋 楊萬里와 淸 查愼行 그리고 제1조에서 이미 예시된 적이 있는 魯濱의 작품이다. 이들 세 詩句에 대한 評語인 ‘句法은 다르지만 뜻이 같음’(句不同而意同)은 황정건이 말한 ‘그 뜻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말을 만드는’(不易其意而造其語) 換骨法에 가깝다. 魯濱이 실제로 양만리와 사신행의 시구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자신 또한 의도적으로 ‘아득히 바라보이는 언덕이 너무나 광활하여 그 가운데 외로이 서있는 나무들이 초라해 보인다’는 동일한 이미지를 묘사하려고 하였는지

26) 《隨園詩話》 정편14-27.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합치되었는지’(不謀而合) 알 수는 없지만, 원래는 전자의 경우로 여기고 한층 더 뛰어난 시구를 만들어내었다고 평가하였다.

《隨園詩話》의 또 다른 조목에서 비록 翻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翻案의 의미와 유사한 ‘그 뜻을 반대로 한다’(反其意)는 평어를 달아, 翻案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거이 시에 「주공은 근거 없는 말 퍼뜨리는 때 두려워했고, 왕망은 지위 낮은 선비 때 공손했다네. 만약 당시에 몸이 일찍 죽었다면, 두 사람의 진위를 누가 알았으리요?」라고 하였는데, 宋人이 그 뜻을 반대로 하여 「젊은이의 사타구니 아래 모욕이 어찌 거슬리지 않았겠는가? 노인은 흠다리 주변에서 놀라며 불평했다네. 인물을 만약 끝까지 살펴보지 않았다면, 회음 후[한신]가 어찌 반드시 문성[장량]보다 (불행이) 덜했겠는가?」

白香山詩雲:「周公恐懼流言日, 王莽謙恭下土時. 若使當時身早死, 兩人眞僞有誰知?」宋人反其意, 曰:「少年胯下安無忤, 老父坵邊愕不平. 人物若非觀歲暮, 淮陰何必滅文成?」<sup>27)</sup>

위 조목에 예시한 백거이의 시는 <放言五首><sup>28)</sup>이고, 宋人의 시는 양만리의 <過淮陰縣題韓信廟><sup>29)</sup>이다. 백거이의 시에 언급된 두 인물은 周公과 王莽이다. 周 武王이 죽자 아들 成王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나, 나이가 어려 武王의 동생 周公 묘이 섭정을 하였다. 그런데 武王의 몇몇 동생들이 周公 묘의 섭정을 조카인 成王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27) 《隨園詩話》 정편5-59.

28)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贈君一法決狐疑, 不用鑽龜與祝著. 試玉要燒三日滿, 辨材須待七年期. 周公恐懼流言日, 王莽謙恭下土時. 若使當時身早死, 兩人眞僞有誰知?

29)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來時月黑過淮陰, 歸路天花舞故城. 一劍光寒千古淚, 三家市出萬人英. 少年胯下安無忤, 老父坵邊愕不平. 人物若非觀歲暮, 淮陰何必滅文成?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成王이 어른이 되자 그에게 정권을 물려주니, 그 제야 成王에 대한 周公의 衷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반대로 王莽은 갖가지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역사상 최초로 禪讓의 형식으로 前漢의 황제 권력을 빼앗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前漢 末 大司馬로 있을 때는 아직 왕위찬탈의 야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채 거짓으로 공손하게 행동하며 인심을 얻었지만 결국 스스로 황제가 되어 新나라를 세움으로써 자신의 야욕을 채우게 되었다. 만약 두 사람이 일찍 죽었다면 후에 밝혀진 周公의 衷心과 王莽의 야욕의 眞僞를 어찌 분별할 수 있었겠는가?

양만리의 시에 언급된 두 인물은 韓信과 張良이다. 韓信이 가난했던 시절 淮陰의 한 소년이 그를 업신여겨 “네가 정녕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칼로 나를 찌르고, 죽기 싫으면 내 가량이 밭을 지나가거라.”(信能死刺我, 不能死出我袴.)<sup>30)</sup>라고 하자, 한신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내며 그의 가량이 밭을 기어 나갔다. 후에 한신이 楚王이 되어 자신을 옥보였던 그 소년을 불러 中尉를 시키고는, 그 당시 죽지 않은 것은 죽을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張良이 博浪沙에서 秦王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下邳로 숨어들어와 떠돌 때, “한 노인이 갈옷을 입고 장량 쪽으로 다가와서는 일부러 자기 신발을 흙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 돌아보며 장량에게 ‘네가 내려가서 신발을 가져오너라.’라고 하자, 장량이 놀라서 그 노인을 때리려 하였다.”(有一老父衣褐至良所, 直墮其履圯下, 顧謂良曰: ‘孺子下取履.’ 良愕然, 欲毆之.)<sup>31)</sup> 그러나 상대가 노인인지라 꼭 참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후에 그 노인은 張良에게 太公의 兵法에 관한 책을 주니, 張良이 늘 옆에 끼고 익히며 실력을 연마하였다. 만약 후인들이 이 두 사람의 삶의 處境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면 노인에게 수모를 당한 張良보다 젊은이에게 당한 韓信이 덜 불행했다고 어찌 단정할 수 있었겠는가?

원매가 위 조목에서 評語로 사용한 ‘그 뜻을 반대로 한다’(反其意)는 말

30) 《史記·淮陰侯列傳》

31) 《史記·留侯世家》

은 곧 양만리가 《誠齋詩話》에서 ‘古人的 句律을 사용하나 그 句意는 사용하지 않는다’(用古人句律, 而不用其句意)고 한 舍意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 뜻을 반대로 한다’(反其意)고 함은 백거이 시구의 「왕위찬탈의 중심에서, 오해를 산 周公과 야심을 숨긴 王莽」→[예견된 결과]→오해를 풀 周公과 야욕을 채운 王莽의 뜻에서 양만리 시구의 「젊은이에게 모욕을 당한 韓信과 노인에게 모욕을 당한 張良」→[反轉의 결과]→韓信이 張良보다 더 불행해졌음]으로 그 뜻을 반대로 하여 나타내었음을 말한 것이다. 더하여 백거이의 시구와 양만리의 시구는 똑같이 칠언 율시의 頸聯과 尾聯에 해당하며, 句式 또한 모든 詩句가 2·2·3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는 결국 《隨園詩話》에서 翻案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해당되는 시구를 예시하였다.

시는 翻案을 귀히 여긴다. 神仙이란 찬미하는 칭호인데, 옛 사람은 「대장부 목숨 짧으니, 불행히도 신선이 되었네.」라고 하였다. 버들개지는 공중에 떠도는 물상인데, 옛 사람은 「나는 버들개지보다 더 떠돌지만, 버들개지는 봄 한철만 바쁠 뿐이라네.」<sup>32)</sup>라고 하였다. 長沙는 아득히 먼 곳인데, 옛 사람은 「어제 밤 그대와 함께 賈誼를 그리워하였더니, 長沙가 오히려 洞庭湖의 남쪽에 있었다네.」<sup>33)</sup>라고 하였다. 龍門은 매우 높은 境界인데, 옛 사람은 「시원하게 천만리 長江에나 갈 것이지, 고생스럽게 龍門에 오르게 하지는 말라.」<sup>34)</sup>라고 하였다. 흰 구름은 한가로운 물상인데, 옛 사람은 「흰 구름은 아침에 나와 하늘 끝까지 가니, 노승에 비하면 오히려 한가롭지 못하네.」<sup>35)</sup>라고 하였다. 「몸을 닦아 매화가 됨」은 사람을 가리키니, 方子雲이

32) 宋 石柔의 <絶句> 중 제3-4구이며, 제1-2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來時萬縷弄輕黃, 去日飛球滿路旁.

33) 中唐 張祜의 <贈李修源> 중 제3-4구이며, 제1-2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嶽陽新尉曉衙參, 卻是傍人意未甘.

34) 中唐 竇鞏의 <放魚> 중 제3-4구이며, 제1-2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金錢贖得免刀痕, 聞道禽魚亦感恩.

35) 晚唐 陸龜蒙의 <山中僧> 중 제3-4구이며, 제1-2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手開一室翠微裏, 日暮白雲棲半間.

나에게 보내준 시에 「매화도 전생에 몸을 닦은 복이 있으니, 신선을 찾아 주인으로 여긴다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구들은 모두 이른바 한층 더 발전된 것들이다.

詩貴翻案. 神仙, 美稱也; 而昔人曰: 「丈夫生命薄, 不幸作神仙.」 楊花, 飄蕩物也; 而昔人雲: 「我比楊花更飄蕩, 楊花只有一春忙.」 長沙, 遠地也; 而昔人雲: 「昨夜與君思賈誼, 長沙猶在洞庭南.」 龍門, 高境也; 而昔人雲: 「好去長江千萬裏, 莫教辛苦上龍門.」 白雲, 閑物也; 而昔人雲: 「白雲朝出天際去, 若比老僧猶未閑.」 「修到梅花」, 指人也; 而方子雲見贈雲: 「梅花也有修來福, 著個神仙作主人.」 皆所謂更進一層也.<sup>36)</sup>

원매는 먼저 이전부터 전해오는 여섯 가지 公案을 제시하고, 이러한 公案의 고정 관념을 정면으로 뒤집어 그 반대의 詩意를 나타낸 시구를 예시하였다. ‘楊花—飄蕩物’에 예시된 작품은 宋 石柔의 칠언 절구 <絕句> 중 제3-4구이며, ‘長沙—遠地’에 예시된 작품은 中唐 張祜의 칠언 절구 <贈李修源> 중 제3-4구이며, ‘龍門—高境’에 예시된 작품은 中唐 竇鞏의 칠언 절구 <放魚> 중 제3-4구이고, ‘白雲—閑物’에 예시된 작품은 晚唐 陸龜蒙의 칠언 절구 <山中僧> 중 제3-4구이다.<sup>37)</sup>

마지막의 ‘몸을 닦아 매화가 된다’(修到梅花)는 말은 일종의 禪詩로서, 滁州 琅琊山에 위치한 醉翁亭의 楹聯에 적힌 구절에서 유래하는데, 그 원형은 “원컨대 산빛을 살아있는 부처에게 바치고, 몸을 닦아 매화가 되어 술에 취한 늙은이와 짝한다네.”(願將山色供生佛, 修到梅花伴醉翁.)이다. 원매는 ‘修到梅花—指人’의 公案을 제시하고 나서 翻案된 시구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公案이 발생하게 된 연원을 밝힌 성격의 시구를 예시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翻案된 시구들은 모두 ‘한층 더 발전된’(更進一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評語를 씌으로써 作詩 과정에서 翻案을 귀히

36) 《隨園詩話》 정편2-51.

37) 제1조의 ‘神仙—美稱’에 예시된 시구가 누구의 작품인지 현재로서는 考究할 방법이 없다.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실제로 黃叔燦은 《唐詩箋注》에서 晚唐 陸龜蒙의 <山中僧> 중 제3-4구에 대해 “노승에 비하면 오히려 한가롭지 못하네”라고 것은, 詩意를 뒤집은 것이 참으로 오묘하다.”(‘若比老僧猶未閑’ 翻得妙.)라고 하여, 翻案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sup>38)</sup>

원래는 또한 清代 시인들 중 翻案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인 시구들을 별도로 예시해 보이기도 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뛰어남으로 삼는다. ‘문을 닫음[杜門]과 ‘수레를 매어두는[懸車] 일은 고상한 것이다. 그러나 張寶臣의 <致仕>에 「문은 산을 보기 위한 것이지 어찌 잠가두는 데 쓰는가? 수레 또한 사슴을 몰 일이지 반드시 걸어들 필요는 없다네.」라고 하였다. 이별은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黃石牧의 <送別冊子>에 「한 차례 보내고 나면 한 획이 전해지니, 인생은 어찌하여 이별 많음을 싫어하는가?」라고 하였다. <寄衣>는 古曲이다. 그러나 盛靑樓의 <出門>에 「옷상자 꼼꼼히 살펴 갓옷과 베옷 갖추었는데, 일찌감치 이별하고 나니 옷 부치기 어렵다는 것 알겠네.」라고 하였다. 「打起黃鶯兒<sup>39)</sup>」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나 朱受新的 <春鶯>에 「누대 위에서 새벽 비에 우는 것을 내버려 뒤라, 미인은 꿈에서 이미 漁陽에 도착했으니.」라고 하였다.

詩以進一步爲佳：杜門懸車，高尚也；而張寶臣<致仕>雲：「門爲看山寧用杜？車還駕鹿不須懸。」別離，苦事也；而黃石牧<送別冊子>雲：「一度送行傳一畫，人生那厭別離多。」<寄衣>，古曲也；而盛靑樓<出門>雲：「檢點篋中裘葛具，早知別後寄衣難。」「打起黃鶯兒」，懼驚夢也；而朱受新<春鶯>雲：「任爾樓頭啼曉雨，美人夢已到漁陽。」<sup>40)</sup>

위 조목에서 비록 직접적으로 翻案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시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뛰어남으로 삼는다’(詩以進一步爲佳)는 비교적 긴 評語

38) 霍松林 主編, 《萬首唐人絕句校注集評》(全三冊), 山西人民出版社, 1991. 중 下冊 851쪽.

39) 唐 金昌緒의 <春怨> 시구이다.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打起黃鶯兒, 莫教枝上啼. 啼時驚妾夢, 不得到遼西.

40) 《隨園詩話》 정편14-84.

를 달고, 이에 해당하는 네 명의 清代 시인들의 시구를 예시하였다. 앞서 이상적인 翻案詩의 본색은 ‘그 뜻을 반대로 하여 써서’(反其意而用之) ‘한 층 더 발전된’(更進一層) 시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음을 천명하였거니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公案을 뒤집어 그 반대의 의미로 쓰인 이 시구들은 분명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매가 실제 창작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翻案의 기법을 운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그의 <落日>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落日金盤大,	떨어지는 해 금 쟁반 같이 크니,
搖山未敢吞.	산을 뒤흔드나 삼키지는 않는다.
松根明細草,	소나무 뿌리에 붙은 작은 풀조차 비추고,
天外表孤村.	하늘 밖 우뚝 선 외로운 촌마을까지 비추네.
似寫衰年意,	마치 늙은이의 마음을 묘사하는 듯하여,
頻驚旅客魂.	자주 나그네의 혼을 놀라게 하네.
今宵新月好,	오늘 밤 새 달은 좋기만 한데,
未必便黃昏.	반드시 황혼일 필요는 없다네.

이 시는 乾隆 33년(1768)에 지은 것이다. 떨어지는 해[夕陽]는 노년의 悔恨 내지 絶望을 상징한다. 그러나 원매는 떨어지는 해를 통하여 절망은 커녕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견하고 있다. 석양을 바라보며 느끼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唐 李商隱의 <樂游原>이 비교적 유명하다. 그는 저물녘 長安의 동남쪽에 위치한 樂游原에 올라 석양이 지는 광경을 보고 느낀 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向晚意不適,	해질녘에 마음이 편치 않아,
驅車登古原.	수레를 몰아 古原에 올랐다.
夕陽無限好,	석양은 한없이 좋은데,
只是近黃昏.	다만 황혼이 가까워졌다네.

이 시는 李商隱의 작품 가운데 유독 含意가 넓기로 유명한데, 단순히 저물어 가는 석양의 광경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몸이 늙어가니 신세가 처량해짐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의미를 확대하여 晚唐의 운명이 다해 감을 가슴 아파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시인은 ‘황혼이 가까웠음’(近黃昏)을 슬퍼하고, 이러한 감정을 ‘해질 녘의 울적한’(向晚意不適) 情懷에 기탁하였다. 그러나 원매는 똑같은 ‘落日’[夕陽]을 묘사하면서도 그 의미는 이상은 시의 내용과 정반대이다. 즉, 떨어지는 해는 금 쟁반 같이 커서 찬란한 빛을 잃지 않고, 산을 뒤흔들기도 하지만 감히 삼키지는 않으니, 강한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석양이 내뿜는 빛은 소나무 뿌리에 붙은 작은 풀과 하늘 아래 우뚝 서있는 외로운 촌마을까지 비쳐준다. 설령 떨어지는 해가 老年의 서글픈 마음으로 표출되어 나그네의 마음을 놀라게 한다 하더라도 시인은 전혀 처량한 느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 저녁 새로 뜬 달은 좋아서 천지를 고무 비출 수 있으니, 앞날이 결코 어둡지 않음을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원매의 <落日>은 바로 이상은의 <樂游原>을 原作詩로 삼아 그 意境을 뒤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41)</sup>

이상 《隨園詩話》를 중심으로 원매의 翻案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원매는 양만리보다 翻案의 범위를 확대하여, 본보기로 삼는 대상을 前人の 詩句로 제한하지 않았다. 즉, 이전부터 전해오는 公案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기초 위에 ‘그 뜻을 반대로 하여 써서’(反其意而用之) ‘한층 더 발전된’(更進一層) 시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翻案의 주요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만리의 翻案法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詩語와 詩意 그리고 句法[句律]이라는 세 가지 翻案의 구성 요소 중 詩語의 수용 여부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翻案法이 摹擬와 剽竊의 또 다른 變形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의식적으로 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서 사람이 이미 사용한 詩

41) 王英志 選注, 《袁枚詩選》, 中州古籍出版社, 1993, 130쪽.

語를 그대로 援用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摹擬와 剽竊의 혐의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매의 翻案法은 그저 다른 사람이 사용한 詩意를 중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 사람이 사용한 詩意를 충분히 인식한 기초 위에 그 의미를 뒤집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作詩法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결 론

황정건이 換骨奪胎의 詩法을 주장한 이래 역대 몇몇 작가 및 시론가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詩句의 변화를 통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翻案法을 사용하였다. 詩法의 한 유형으로서의 ‘翻案’이란 곧 古人의 詩意에 대해 그 의미를 반대로 하여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뜻을 창출해내는 기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시적 재능이 뛰어난 자가 아니면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지도 못할뿐더러 그 흔적까지 남기게 되는 위험 요소도 잠재되어 있다.

양만리는 젊은 시절 江西詩派의 시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황정건이 주장한 詩法으로서의 換骨奪胎法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作詩 과정에서 ‘新意의 추구’ — ‘옛것을 새롭게 만들’(以故为新) 목적으로 翻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원매는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詩句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佳句가 만들어진다는 비교적 단순한 목적에서 翻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목적성의 차이는 곧 翻案의 구성 요소와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詩語와 詩意 그리고 句法[句律]이라는 세 가지 翻案의 구성 요소를 놓고, 양만리는 古人의 詩語를 사용하나 그 詩意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翻案의 妙法이라고 생각하여 詩語의 援用을 중시한 반면, 원매는 詩語의 사용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詩意[전통적 公案도 포함]를 ‘뒤집어서’[翻] 좀 더 발전된 형태의 詩句를 만들어내는 것이 翻案의 妙味라

고 여겼던 것이다.

作詩 과정에서 換骨奪胎法 또는 翻案法의 운용이 ‘新意的 추구’와 ‘佳句로의 발전’이라는 순기능적 詩法인가 그렇지 않으면 ‘摹擬와 剽竊의 變形’이라는 역기능적 詩法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양만리와 원매 이외의 기타 작가 내지 시론가의 翻案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 參考文獻 >

-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全十冊), 江蘇古籍出版社, 1998.  
 楊萬里 著, 《誠齋集》(全二冊), 吉林出版集团有限责任公司, 2005.  
 袁枚 著·王英志 主編, 《袁枚全集》(全八卷), 江蘇古籍出版社, 1993.  
 王鏡海·王果 選注, 《隨園詩話選注》, 岳麓書社, 1994.  
 王英志 選注, 《袁枚詩選》, 中州古籍出版社, 1993.  
 張少康 著·李鴻鎮 譯, 《中國古典文學創作論》, 法仁文化社, 2000.  
 張健 著, 《文學批評論集》, 學生書局, 민국 74.  
 畢桂發 外 主編, 《精選歷代詩話評釋》, 中州古籍出版社, 1987.  
 霍松林 主編, 《萬首唐人絕句校注集評》(全三冊), 山西人民出版社, 1991.  
 吳台錫 著, 《黃庭堅詩研究》,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신재환, <隨園詩話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6.

### < 中文提要 >

自黃庭堅倡導‘換骨脫胎’的詩法以來, 曆來有些詩人和詩論家爲通過詩句的變化追求新意而使用了‘翻案法’, 這是一種從‘換骨脫胎’的繼承和發展。作爲詩法的一類型的‘翻案’是通過將古人的詩意翻轉以用, 由而推出新意的方

法。可若非有卓越的詩才的詩人，不但得不到預期的功效，很容易留下痕跡，故潛藏著很危險的因素。

楊萬裏年輕時從江西詩派學詩，自然而然接受了黃庭堅的‘換骨脫胎’法。而他在作詩的過程中更進一步主唱‘以故爲新’爲目的的翻案法。不過袁枚認爲通過新的變化發展詩句的意思，從而能產生出佳句，即他在較爲單純的動機下提出了‘翻案’的必要。

他們二人如此不同的目的具體呈現在翻案的組成因素和方法上。對待翻案最主要的三個因素：詩語・詩意和句法(句律)方面，楊萬裏認爲采用古人詩語而不用古意乃翻案的妙法，故而強調了詩語的援用。而袁枚則認爲用不用詩語不是最重要，而認爲通過翻轉詩意(包括公案)而寫出更好的詩句才是翻案的妙味。

주제어 : 換骨奪胎, 換骨奪胎法, 翻案, 翻案法, 公案, 新意, 摹擬와 剽竊

